

딜레마 빠진 논술교육... '출판계, 바른 길 제시해야'

모범답안 강요하는 논술, '획일화·정형화' 치달아 언론계, '돈 되는 장사' 논술시장 뛰어들어 스테디셀러·전집류, '논술도서' 둔갑

“평생 인문학 교수를 했고, 인문학 서적을 많이 써왔지만 지금 논술 시험을 치르라면 자신 없다.”

지난 9월 ‘열림과 소통의 인문학’을 주제로 처음 열린 인문주간 기초강연에 나선 이화여대 이어령 명예교수가 인문학의 위기를 진단하며 강조한 말이다. “학원에서 배운 획일적인 답안으로 시험점수만 따려고 하면 우리나라에서 인문학은 끝”이라며 획일화된 현행 논술 교육을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상상력과 창의성을 키우고 학생들의 무한한 가능성을 열어주어야 할 논술 교육이 획일화되고 정형화되고 있다는 게 이 교수의 생각이다. 이제까지 독창적이고 창의적인 발상으로 수많은 책들을 선보인 이어령 교수가 지금의 논술시험에 자신이 없다고 말한 대목은 현행 논술 교육이 제 갈 길을 가고 있지 않는다는 경종과도 같지만, 어느 누구 하나 귀 기울여 듣는 사람이 없는 것이 또한 현실이다.

2년 사이 논술시장 638% 성장

왜곡된 논술 교육, 즉 논술 위주 입시로 인한 초중등 교육이 왜곡되는 것을 막자는 논의는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다. 지난 10월 12일, 김신일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한국교원노동조합, 자유교원조합 등 3개 교원노조 단체장과 만난 자리에서 왜곡된 논술 교육의 정상화에 대한 논의를 가진 바 있다.

이 날 전교조 장혜옥 위원장이 “서울대 등 이른바 명

문대들이 대입에서 논술의 비중을 강화하고 있어 교과 운영 및 교육과정 전반에 지장을 주고 있다”고 강조했고, 김 부총리는 “교과과정에서 배운 내용을 논리적으로 전개하는 수준에서 출제해야 한다”는 원칙론과 내세우면서 “각 대학 총장들과 만나 논의하겠다”는 답변을 했다.

교육부가 지난 10월 13일부터 시작된 국정감사에서 국회 교육위 소속 유기홍 의원(열린우리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6월 말 현재 전국의 논술전문학원은 465 곳. 그 중 86.5%인 402개 학원이 2004년 이후 설립되었다. 2년 사이에 논술학원이 638% 성장했다는 말이다. 경기도가 102곳으로 가장 많고, 서울 96곳, 전북 41곳, 경남 35곳으로 그 뒤를 이었다. 그러나 유기홍 의원은 “종합학원과 단과학원 등에서 논술 사교육이 이뤄지는 것을 감안하면 논술학원 수는 통계조차 잡기 힘들 것”이라는 의견을 피력했다.

해마다 변하는 대학들의 논술입시제도로 인해 학부모들의 주머니 사정도 여의치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0월 24일 서울대 국정감사에서 국회 교육위 김교홍 의원(열린우리당)은 “초중고생 및 학부모 1,67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논술은 학원 등 사교육에 의존한다’는 응답이 49.0%로 나타났다”면서 “방문선생님 등에 의한 논술 교육 등을 감안하면 초중고생 중 67.9%가 사교육으로 논술을 배우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논술 사교육비 지출 비용으로는 ‘30만 원 이상 50만 원 이하’가 30.1%, ‘50만 원 이상 100만 원 이하’가 28.8%로

나타났다. 김 의원 측은 “현재 논술을 배우지 않는 이유가 경제적인 문제 때문이라고 답한 경우가 35.7%나 된다”면서 “2008년 서울대 입시제도가 사교육 활성화와 초·중·등 교육의 심각한 왜곡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유아용 그림책도 이제 '논술용' 딱지 붙여야 할 판

교육계뿐 아니라 언론들도 논술교육의 왜곡에 앞장 서고 있다. 지면을 통해서도 왜곡된 논술교육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돈 되는 장사’인 논술시장을 두고만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조선일보는 지난 6월 경기도 평촌 사옥에 평촌논술센터를 열었고, 자회사인 에듀조선은 서울 대치동에 디스커스 아카데미를 설립했다.

동아일보는 이지논술이라는 온라인 사업을, 중앙일보는 역사논술 전국대회를 열고 있다. 경향신문은 경향 에듀케이션을 통해 초등학생 논술교재를 판매하고 있고, 한겨레 역시 논술입시 특강을 대형 논술학원과 연계해 진행하고 있다. 전교조의 한 관계자는 “지면에서는 논술교육에 대한 문제의식을 꼬집으면서도 위기의식을 함께 조장하고 있다”면서 “위기의식을 이용해 돈벌이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눈총을 모면하기 어려운 형편”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출판계에도 존재한다. “유아용 그림책에도 ‘논술 대비’라는 딱지를 붙여야 하지 않겠냐”는 자조 섞인 우스갯소리가 출판인들 사이에서 종종 들리곤 한다. 흔히 ‘대입논술의 길잡이’로 통하는 삼국지 시장은 이미 포화상태다. 이문열의 《삼국지》(민음사)는 대입논술의 단골주제라는 입소문이 퍼지면서 1988년 출간된 이후 1,500만 부 이상이 판매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황석영과 장정일, 조성기 등 내로라하는 작가들이 《삼국지》를 선보이면서, 《삼국지》는 논술대비 왕도로까지 인식되는 모습이다.

국어, 논술 준비하는 기술적 과목으로 전락

조정래 작가의 《태백산맥》도 어느 순간부터 ‘최고의 논술대비용 도서’라는 카피로 홍보되고 있다. 여기에 죽었던 시장이라고 인식되던 전집물들이 논술대비용이라

는 타이틀로 새롭게 출간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한 중견출판사 편집팀장은 “시장에 영합하는 모습이 없지 않지만 좋은 책을 독자들에게 다시 한번 선택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은 나쁠 것이 없다”면서 “정작 이런 책들을 읽을만한 시간과 지적 수준이 학생들에게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라고 지적한다.

한성여고 국어과 염우영 선생은 “차라리 학생들이 《삼국지》, 《태백산맥》 등 소설을 읽고 사상이나 철학을 이해할 수 있다면 좋겠다”면서 “논술학원에서 학생들이 이해도 할 수 없는 철학서적들을 가지고 주입식으로 논술을 가르치는 걸 보면 학생들만 안쓰럽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고 말했다. 염 선생은 최근 “국영수가 아니라 영수논으로 주요 과목이 바뀌었다며 국어과목이 논술을 준비하기 위한 기술적 측면의 과목을 전락한 듯한 느낌을 받는다”고 토로했다.

출판계 '정상적인 논술' 위해 촉매제 역할해야

더 우수한 학생들을 뽑기 위한, 학생 선발의 변별력을 담보하기 위한 대학의 논술시험만을 탓할 수 없다. 그러나 대학들도 스스로 되돌아보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 어령 교수가 한탄한 것처럼 획일화되고 형식적인 기준에 의한 모범답안만을 강요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는 얘기다. 사회적 공기가 스스로 자부하는 언론들도 돈벌이에만 급급하다는 오명을 벗으려면 현행 논술제도가 가진 모순을 깊이 있게 지적할 뿐만 아니라 그에 걸맞는 사회적 책임에 앞장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출판계 역시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 한 출판평론가는 “창의력과 상상력의 수원지인 지식의 창고를 열어 독자들에게 그것을 전달해 주는 메신저로서 역할을 자임하는 출판계가 목전의 이익만 추구하지 말고, 왜곡된 논술제도가 제대로 방향을 잡을 수 있도록 촉매제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민**

취재_정동석 기자